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읍'

유엔 세계관광기구 주관 기념식서 선정…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 기대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선정되는 데 성공했다.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무주군 무주읍은 2월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황인홍 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운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축하 한미당' 행사(주관: 무주군 관광협의회)를 열어 기쁨을 함께 나눴다.

농악대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17일 중국 후자우시에서 수상한 '관광마을 상배'를 무주읍 주민들을 대표해 신운주 무주읍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옮긴 무주군 무주읍은 앞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흥보 페이지 제작도 가능해 인지도 향상을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친환경 생태관광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애환심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세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데 성공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계관광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었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군은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로, 무주군 무주읍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청정 자연환경, △한풍,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지원, △한풍,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지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또한 주민 삶의 기반이 되는 무주 미실길(금강마실길, 금강밤새길), 소이나루공원, 지남공원 등의 자연 자원은 물론, 풍랑·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화관, 복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 등의 생활·문화자원도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세계 65개국 207개 신청마을 중 총 40여 곳이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무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역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전북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2021), △전남 신안 퍼플섬(2021), △경남 하동 평사리 섬진강마을(2022), △제주 세화마을·동백마을(2023), △전남 회순 고인돌 묘산마을(2023)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 군민 일상과 지역 문화 속에 녹아들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태권도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도록 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성지 구상 방안을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무주군 태권도 성지·위상 강화 방안」 5분 발언을 통해 "반딧불

축제와 더불어 무주가 세계에 내놓을 또 하나의 자랑, 태권도 점신이 그 빛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태권도는 한국인의 혼이 담긴 문화이다 세계인이 공유하는 가치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가 사랑하는 태권도의 심장부 무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권도가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이며 살아있는 태권도 도시를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어울리는 지역 최대 체육공간 탄생

진안군은 21일 오후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진안군 최대 규모의 실내 체육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생활체육 공간이다.

지난 2021년 착공해 4년여간 총사업

비 132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37.5억 원, 군비 54.5억 원)이 투입됐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계층과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는 굳은 의지와 화합의 상징을 담고 있다.

준공식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선포식을 축하했다.

센터는 연면적 3,319.16㎡ 규모로 체육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VR체



험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와 페인트 실내 환경을 갖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진안군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있어, 이번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이 도민체전 성공 개최의 핵심 기반이자 군민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한국농어촌공무진장지사
물관리 운영대의원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1일 지사 대회 의실에서 장안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 운영대의원 11명과 지사 물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사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강화와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 등 농어촌의 중점 추진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무진장지사 물관리 중점 추진 업무는 △급수예보 서비스 개선 △농경지 침수방지 제도 개선 △사전 예방적 시설물관리 강화 △홍수 저수지 수위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실현 △농어촌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7대 과제를 순회준 수자원관리부장이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어촌 현장의 문제는 지자체와 공사,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삼선 협력의 중요성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라른 슬로건 아래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로프로그램·진안군 백페킹 축제 개최

진안군은 오는 25일부터 26일 까지 이틀간 '2025 코리아 백페 커스 데이 & 워크 어리운드 생태호수'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로그램의 주최·주관으로 전체적인 행사 기획·운영 및 콘텐츠 구성을 이끌어낸다. 진안군은 주천생태공원, 진안을 가마천 주변 등 장소 제공 및 일부 트레킹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지역 특산품 및 먹거리 시식·판매, 기념품 등을 후원한다.

'코리아 백페커스 데이'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내 대표 백페킹 축제로 해마다 500~600명의 백페커들이 참여해 아웃도어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진행 요원을 포함해 약 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기위치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단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